

다국적 대학생들: 길림 ‘겨울왕국’ 매력 널리 전파할 터

— ‘빙설문화 및 빙설생태 지속가능 발전’ 국제청년포럼 장춘서

길림대학에서 주최한 ‘빙설문화 및 빙설생태 지속가능 발전’ 국제청년포럼이 18일 장춘에서 개최되었다. 길림대학당위 부서기 한희평, 길림성당위 선전부 부부장 겸 길림성인민정부 신문판공실 주임 왕위동, 《인민일보》 길림지사 사장 왕지구 등이 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포럼에는 전세계 30 여개국에서 온 수십명 ‘Z 세대’ 청년들이 참가했다.

한희평은 축사에서 “이번 포럼은 청춘의 지혜를 모아 생태문명에 집중하고 빙설의 전망을 함께 논의하는 축제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청년들이 손잡고 글로벌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탐색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앞으로 길림대학은 빙설문화의 전파 방식을 혁신하고 길림의 빙설이야기를 잘 전달하며 길림 빙설 브랜드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 길림 빙설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전세계 친구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세계 ‘Z 세대’ 대학생들이 평화, 우정, 협력을 전파하는 씨앗이 되고 빙설생태의 미래 모습을 그려내며 지혜로 융합된 지속가능 발전의 시대적 장을 써내려가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기를 바랐다. 왕위동은 “길림성은 동북아의 지리



기하학적 중심에 위치해있고 빙설은 길림의 세계적인 명함이며 길림의 장백산맥은 알프스산맥 및 로키산맥과 함께 ‘세계 3대 파우더 스노우 기지’로 ‘스키천국’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길림성은 국가빙설경제중심, 빙설문화창의중심, 고품질 빙설생활권 및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빙설경제집결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세계 대학생들이 길림에서 본 풍경, 들은 이야기, 체험한 민속, 알게 된 문화를 더 많은 청년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글로벌 문명의 우호적인 교류와 번

영 발전을 촉진하길 희망했다.

포럼 개막식에서는 길림빙설트렌드 글로벌청년협회를 정식 설립함과 동시에 제 1기 ‘길림 빙설스포츠문화 글로벌 추천관’과 ‘길림 빙설예술문화 글로벌 대사’를 임명했다.

이 밖에 무대정, 신본록, 진학비, 전설비 등 4명의 전문가가 각각 빙설 스포츠문화, 빙설산업경제, 빙설의료보장, 빙설국제전파 등 관련 주제를 둘러싸고 강연을 진행했다.

청년원탁회의에서는 전세계 ‘Z 세대’들이 길림 빙설경제 발전, 빙설스포

츠 학술 산업 연계, 빙설예술산업 발전, 장백산 동식물 보호 등에 대해 깊이있는 교류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 개막식에서는 길림대학에서 제작한 동북 빙설문화 주제 단편영화 《서채빙등·일’룩’생화(瑞彩冰灯·一“鹿”生花)》를 방영했다. 주회장에는 빙설스포츠 체험존 및 ‘설운명향·길지대화(雪韵茗香·吉地对话)’ 주제 전통 차 문화존이 동시에 마련되었다.

료해에 따르면 ‘빙설문화 및 빙설생태 지속가능 발전’ 국제청년포럼은 길림대학에서 주최하는 ‘Z 세대 빙설 비단의 길 인연-장백산 글로벌 대학생 스키 카니발’ 프로젝트 활동중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 12월에 개시되었으며 전세계 30 여명의 ‘Z 세대’ 대학생들이 길림성 차간호, 장백산 등지에서 빙설왕국, 겨울사냥, 스키축제, 천지러행활영, ‘눈이 흘날리는 온천’, 얼음조각 제작 등 빙설스포츠, 빙설예술 및 빙설문화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직되었다. 행사는 국내외의 360 여개 매체의 관심을 받았으며 관련 인기 상품은 전세계 소셜미디어에서 동북의 빙설 문화 전파 열풍을 일으켰다.

/ 김영준 순행변 기자



연길해란명주탑 4 월 30 일 정식 오픈

연길해란명주탑(전신 연길기상탑)이 4월 30일에 오픈해 정식으로 대외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2024년, 기상탑 개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연길기상탑은 ‘연길해란명주탑’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연길해란명주탑은 해란강변에 위치해있으며 해발 354미터이다. 이 탑은 연길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시내 전체와 주변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 총 31층에 높이 약 181.2미터에 달한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조선족 문화 요소와 현대건축양식을 융합했는데 상부 디자인은 마치 ‘명주’와 같이 만족단결과 도시 발전을 의미하며 연길의 찬란함과 활력을 상징

하고 있다.

해란명주탑에는 360 도고공전망대, 구름커퍼, 기상박물관, 문화창의시장, 예술연화정, 조선족 특색 식당 등이 포함되며 문화 전시, 관광, 레저오락, 상업 소비를 아우르는 문화관광종합체로 일떠설 계획이다.

금두투자지주그룹 관계자는 “현재 대상은 긴장하게 준비중”이라며 “4월 30일 깜짝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연길시의 새로운 상징적 건축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도시 문화 경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 연변문화관광

여행수기

타이 코란섬 여행기

© 김금단



한해의 끝자락인 12월 17일, 나는 업무를 위한 무거운 겹이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홀로 항항에서 타이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편을 리용하여 타이 출장길에 올랐다. 오랜 무억 거래로 무척 궁핍했던 타이라는 낯선 땅을 이제야 내 발로 걷고 눈으로 보면서 현장에서 몸소 피부로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는 설렘이 가슴에 흘러들었다. 출장 업무가 끝나자 아름다운 과동해(果冻海)를 자랑하는 파타야의 코란섬을 목적지로 정했다. 단체관광의 편리한 대신 혼자 미지의 세계에서 낯선 땅에 내 령혼의 먼지를 털어내고 싶었다.

부두는 이미 섬 여행에 나선 기다랗게 줄 지어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피부색도 옷차림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가운데 섞여 타이 돈으로 30바트를 내고 배에 올랐다. 백명여 되는 이방인 사이에 섞이니 나도 모르게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였다.

배가 천천히 출항하기 시작하였다. 파도가 넘실대는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니 해살이 물결에 반사되어 금빛을 뿌려놓은 듯했다. 심한 파도에 배는 심하게 흔들리며 앞으로 달렸다. 지난해 봄 항항 푸타이 섬에서 겪었던 약한 파도와는 달리 이곳의 파도는 거칠게만 다가왔으나 배의 리듬에 몸을 다소곳이 맡겼다. 새로운 미지의 세상을 만난다는 들뜬 기분에 배의 흔들림이 주는 불안이 다소 해소되면서 고요함만을 추구하는 삶만 산다면 놓치는 풍경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흔들림이 주는 불안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직전 겪어야 하는 관문이기도 하였다. 흔들리는 것이 어찌 배뿐이라. 지나온 삶도 흔들리며 걸여있지 않았던가. 거의 한시간의 항해 끝에 코란섬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얼마를 달렸을가, 굽이를 돌고 돌아 산으로 오르던 중 눈앞에 멀리 펼쳐진 과동해가 나타났다. “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탄이 연발되었다. 바다가 아름다운 줄은 상상만 했지만 이토록 아름다울 줄은 천만뜻밖이었다. 멀리 하늘과 연결된 연한 옥색의 바다, 쪽배들이

흰 물결을 일구며 달리고 있고 풍선처럼 채색 패러글라이딩(滑翔伞)들이 하늘에서 유유히 떠가고 있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몇번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건이 되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발견하고 많이 느끼면서 알록달록 삶의 빛깔을 이쁘게 물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낯선 이국땅에서 용기를 갖고 섬을 찾아 출발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점심부터 해결하여야 하였다. 맥주, 오징어와 불에 구운 마른 물고기 그리고 볶음밥을 주문했다.

섬을 돌아야 하였기에 계속해서 앞으로 달리면서 수많은 외국인 속에 끼여 바다를 마주하고는 느긋한 마음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바다가 떠돌이 누워서 두 손으로 야자를 떠받들고 야자수를 마시며 바다의 파도소리와 물결에 취하는 속에 시간은 흘러갔다. 모래알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고 조개껍질이 보여 손에 쥐고 들으니 안에서 파도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오후 다섯시 마지막 배편 시간이 었기에 우리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배가 부두를 떠나자 코란섬은 점점 작아져 마치 한쪽의 수채화가 물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비행기가 방콕에서 출발 후 세 시간 반 만에 항항 상공에 들어서자 마치 집 마당에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코란섬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낮선 것에 혼자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준 아름다운 섬이었다. 길을 잃은 듯 달리다가 어느새 목적지에 닿는 코란섬의 골목처럼 인생도 나만의 울타리를 조금씩 허물면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공간을 만들어가고 흔들림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궤적을 그릴 수 있음을 배웠다. 고민과 두려움, 주저함이 없이 낯선 세계로 어디로든지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준 코란섬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어 내가 지향하고 꿈꾸는 곳으로 나의 삶을 이쁘게 안내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도문시국문관광종합단지 8 월 운영

21일, 도문시문화라지오텔레비존 방송및관광국에 따르면 최근 8,500 만원이 투입된 도문시국문관광종합단지 대상의 일부 건물이 투자유치를 완료하고 사용에 들어갔다. 나머지 건물은 계획에 따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 모두 사용에 들어갈게 된다.

도문시국문관광종합단지 대상은 도문시 통상구거리 남쪽에 위치하고 있

으며 지난해 6월에 건설을 시작했다. 이 대상은 문화관광의 새로운 형태를 혁신적으로 융합하여 민속 특색 음식, 레저오락, 종합 슈퍼마켓, 여행활영, 관광 숙박 등 기능을 통합,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특색 체험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획되었다. 이 대상의 총건축면적은 8,827 평방미터로 3개의 건물이 포함된다.

1호 건물은 건축면적이 4,081 평방

미터로 관광집산센터, 민속가무공연레스토랑 등 기능을 갖추고 있다. 현재 하수공사, 일부 상수공사 및 일부 전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6월에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2호 건물은 건축면적이 1,539 평방미터, 주요 기능은 민속특색레스토랑, 상품전시판매, 여행활영기지, 레저커피광장, 360 도전망대 등으로 일부는 사용에 들어갔다. 그중 360

/ 김영화기자

운남성에서 ‘한달 살아보기’ 떠나볼가?

- 우리 나라 새 관광 트렌드로 떠올라

운남성의 관광 트렌드가 ‘핫플 도장깨기형’ 여행에서 현지서 장기 체류하는 ‘살아보기’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달 살기, 한분기 살기, 한해 살기 등 형태로 천천히 시간을 보내는 형식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살아보기’ 여행을 위해 운남성을 방문한 관광객은 400 만명에 육박했다.

식숙주와 관광을 모두 포함하는 ‘살아보기’ 여행은 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어려서부터 여행을 좋아했던 사친성 출신 무봉작은 5년전 운남성의 전통 마을인 해안(海晏) 촌에 눌러앉았다. 그는 질리지 않는 석양과 짙은 삶의 정취가 자신을 끌어당겼다고 말했다.

곤명시 진지(滇池) 관광지에서 자리한 해안촌은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옛 어촌 마을이다. ‘가장 아름다운 일몰명소’로도 유명해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600 킬로미터 떨어진 보이시 경매산에서는 광동성 심수에서 온 엔지니어 강성이 부랑족 마을에서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다. 집 밖에는 운해가 펼쳐지고 린근에서는 차를 수확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는 운해를 바라보며 일하기 위해 2년전 이곳에서 집을 구했다.

국내의 유명 관광지인 운남성은 현재 관광 경제에서 종합 소비 경제로 향하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꽤



적한 생태환경, 적절한 기후, 느린 생활 리듬 등 운남의 독특한 매력이 최근 수년간 ‘체류형’ 장기 여행객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관광연구원장 대빈은 라이프스타일을 관광 체험의 대상중 하나로, 도시·항촌 생활을 체험장으로 여기는 등 관광에 대한 이해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아보기’ 여행은 단순한 여행과 거주 의미를 넘어 문화 체험과 라이프스타일의 깊은 융합이라고 덧붙였다.

운남성문화관광청은 올 들어 ‘살아보기’ 여행에 관한 3개년 행동을 시

작했다고 소개했다. 3,000 개 이상의 중점 ‘살아보기’ 마을을 건설하고 건강양생, 수학여행, 문화·스포츠, 양로 등 새로운 업종을 발전시켜 맞춤형 ‘생활 랜덤 박스’를 제공할겠다는 계획이다.

‘살아보기’의 인기로 운남성의 향촌뿐만 아니라 소도시도 관광자원으로 발굴되고 있다.

웁게시 원강현은 특출난 관광자원은 없지만 따뜻한 기후로 지난 설 연휴 기간에만 3만 5,000 명의 관광객이 ‘살아보기’ 체험을 위해 방문했다. 원강현 도심지역 인구의 절반에 가까

운 수처다.

현재 운남성의 ‘살아보기’ 관광 경제는 두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곤명, 대리, 령강 등 전통 관광도시는 ‘생활 체험장’으로 변모했다. 원강으로 대표되는 특색현은 비교 우위를 리용해 발전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살아보기’ 체험은 중국 관광 소비의 변화와 량질의 삶에 대한 수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움과 편리함이 공존하고 휴식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행을 추구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신학사